

김민석 총리, 광주 광폭 행보... 텃밭 다지고 당권 예열?

지난주 기아 방문 이어 4일 노인건강타운 방문·11일 서구청 특강
당원 1인1표제 추진 속 광주·전남 중요성 커져... '당심 선점' 해석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나 광주시를 방문하는 이례적인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의 잇단 '광주 행보'는 통상적인 국정 현안 점검을 넘어 경제와 민생, 복지, 문화 현장을 두루 훑는 촘촘한 일정 탓에,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호남 텃밭 다지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논의와 맞물려, 광주 방문 일정 하나하나가 향후 당권 지형과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지역 당심을 선점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지난 30일 국무총리실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4일 남구 빚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어르신 복지·건강 돌봄 현장을 점검한 뒤, 서구가 마련한 국정설명회 특별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남구 양림문화센터를 방문해 지역 문화·역사 현장을 찾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양림동을 방문해 광주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과 서구 골목상권,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현장을 살피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불과 2주 사이 세 번에 걸쳐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 북구(5·18묘지), 서구(기아차·서구청), 광산구(송정역시장), 남구(노인타운·양림동) 등 동구를 제외한 광주시 전역을 훑는 셈이다.

현장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일정이란 말도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대권 또는 당권을 노리는 김 총리가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호남에서부터 지지세를 확산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변화하는 민주당의 당

헌·당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전당대회 물과 관련해 대의원과 관리위원의 표 비중 격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1인 1표제' 도입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이는 소수 대의원이 과다 대표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만약 당원 1인 1표제가 현실화되거나 관리당원의 비중이 대폭 강화될 경우, 광주와 전남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호남은 인구수 대비 민주당 관리당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가 많더라도,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진성 당원'의 밀집도는 호남이 압도적이다. 결국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 입장에서 호남 당원들의 마음, 즉 '호남 당심'을 얻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총리가 짧은 기간에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경제, 복지, 행정, 문화를 망라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뀐 당원 지형 속에서 호남의 선택이 차기 지도부 선출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4일 서구청 특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강연은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된 민생 대책이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호남 민심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 총리의 이러한 행보가 호남 내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당내 기반이 탄탄한 경쟁자들에 맞서 '호남의 적자' 이미지를 굳히고, 행정 경험과 중량감을 앞세워 지역 여론을 주도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순까지 이어지는 김민석 총리의 '광주 올인' 행보가 단순한 민생 챙기기를 넘어, 요동치는 민주당 역학 구도 속에서 호남의 지지를 선점하는 교두보가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제과점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 찬반 격돌

국힘 지도부 친한계 “단합 저해” vs 친윤계 “짚을건 짚고 가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 조사에 지난 28일 착수한 이후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찬반이 격돌했다. 친한(친한동훈)계가 당의 단합이 필요한 때에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자 구구류인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은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며 맞선 형국이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게시판, 김중혁(전 최고위원) 당무감사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라 보는거냐”라고 반발했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여당 대표직에 있던 자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을 성공시키려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우리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당계를 활용했다면 어찌 그냥 넘어갈 사건이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 춘천시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도 “누군가는 당원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아니다”라며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원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지난 28일 당무감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회동을 추진했지만, 당장은 모이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한계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차피 한 번은 당무감사를 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굳이 지금 집단행동하면 역공당할 시기라 판단해 만나지 않고, 오는 12월 2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여는 복권서트를 계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당계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혁신당 “용인 송전선로 균형발전 취지 훼손”

광주시당 “전면 재검토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초 발표한 초대형 산업단지다. 당시 정부는 부족한 전력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345kV 초고압 송전선을 신설해 수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은 지산지소(地產地消·지역에서 생산해 소비)형 분산에너지 체계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한 채 광주·전남에 비용과 위험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출범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산형 전원 확충과 재생에너지·저장장치 결합, 수요관리 고도화 등 RE100 기반 산업전력으로 바뀌어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ju.co.kr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무고죄 고소

“1년 지나 고소한 의도 밝힐 것...본질은 고소인 남친의 데이트 폭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행은 없었다”며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는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 남친친구 A씨의 ‘데

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남친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격정했다고 한다”며 “이 정황들은 추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고소인에게는 데이트 폭력을 각각 행사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인 고소인 남친친구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